

투데이 칼럼

새학기 시작, 우리 아이는 괜찮을까?

3월 새학기가 시작됨에 따라 학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한 부푼 기대와 함께 새로운 환경에서 자녀들이 잘 적응할지, 공부 잘 할지, 따돌림을 당하지는 않을지 등 여러 가지 걱정과 불안 감에 휩싸이게 된다. 물론 많은 아이들이 보통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적응을 잘 하지 못하고 학업 성적도 저조해지는 아이들이 의외로 적지 않다.

‘등교 거부증 분리 불안 두려움 때문’ 아이들이 무작정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하거나 학교에 갈 시간만 되면 머리가 아프다거나 배가 아프다고 하면서 학교에 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경우에 부모는 난감한 처지에 빠지게 된다. 이를 ‘등교거부증’, ‘학교거부증’, ‘학교공포증’ 등으로 부른다. 등교거부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이 학교에 입학하거나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에는 분리불안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학교자체가 싫어서라기보다는 엄마로부터 장시간 떨어져 있는 것 자체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학교에 가지 않으려 하고 학교에 갈 시간만 되면 특별한 이유없이 여러 가지 신체증상을 호소하게 되는 것이다. 영유아기 때 애착관계가 적절하게 형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러한 분리불안이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으며 부모가

지나치게 과보호하는 가정, 가족끼리 서로 지나치게 의존적인 가정 또는 가정불화가 많거나 엄마가 어떤 이유로 해서 장기간 집을 떠나 있었던 가정에서 분리불안이 발생하기 쉽다.

이가 분리불안 때문에 학교에 가는 것을 겁내는 경우에는 아이의 불안정도를 점검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이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일정한 기간동안은 부모가 아이를 학교에 데리고 가서 수업 중에는 교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수업이 끝나면 데리고 오도록 하고 점차로 부모가 학교에 같이 머무는 시간을 줄여가도록 하며 나중에는 학교에 데려다 주기만 하고 종국에는 아이 혼자서 학교에 가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분리불안을 악화시키는 가정내의 요소가 있다면 이를 해소하는 것이 기본이 된다.

둘째 지능이 떨어지거나 학습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학교에 가기를 싫어할 수 있다. 학교에 가도 선생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고 노력을 해도 성적이 나쁘게 나오는

것이 반복되게 되면 학교생활에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어서 학교에 가는 것을 꺼려하게 된다. 지능이 지나치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아이의 능력에 맞는 교육기관을 찾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학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특수교육을 받는 것이 좋다.

셋째 우울증, 사회공포증 및 기타 정신질환의 증상으로 인해서 학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피하게 되기도 한다. 특히 중·고등학생이 학교에 가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정신질환의 증상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필요한 경우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할 경우에도 학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할 수도 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이러한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보복이 두려거나 더욱더 따돌림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부모나 선생님에게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항상 아이의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아이와 대화를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아이가 이러한 상황에 처할 경우 조기에 이를 발견하여 적절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초석이 된다고 하겠다.

주요력 결핍/과잉 행동 장애-70~80% 약물/행동치료로 개선

주요력 결핍/과잉 행동 장애란 한마디로 부산하고 산만한 것을 의미한다. 몸을 잠시도 가만히 두지 않고 꼼지락거리기도 하고 힘 없이 뛰어다니고 정신을 사납게 만들기도 한다. 참을성도 부족해서 차를 잘 기다리지 못하기도 하고 원하는 것을 바로 들어주지 않으면 심하게 때를 쓰기도 한다.

학습을 할 때도 주의집중을 못해서 공부하라고 하면 5분을 채 넘기지 못하기도 하고 10분이면 풀 수 있는 학습지를 1시간이 되어도 완성하지 못하기도 한다. 꼭 해야 할 일을 일러주어도 언제 그런 말을 들었느냐는 듯이 잊어버리고 그 일을 하지 못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도 선생님에게 꾸지람을 많이 듣게 되고 친구들과의 다툼도 잦아지며 때로는 친구들과부터 따돌림을 당하게도 된다. 또한 머리는 좋은 것 같은데 학업성적은 기대할 것보다 낮게 나오게 된다.

초등학교 1, 2학년 내내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3, 4학년에 접어들면 지능이 떨어지거나 학습장애를 받게 되어서 불안, 초조, 자신감 상실 및 위축감들을 느끼게 되며 때로는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이창화

울지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설

도내 인구 안정세라지만 하향 고착화

전북도는 지금 신경써야 할 것이 하나 뿐이 아니다.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을 위해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아야 하고 비정규직 장인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도 애를 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도내 실제 거주 인구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호남통계청 전주사무소가 지난 2000년 이후 지난해 2015년까지 인구 이동 현상을 조사했는데 역시나 생각했던 그대로이다.

전북도는 거주 인구의 현실과 관련해서 무슨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젊은이들이 타지로 떠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한두 해 전부터 그렇게 아니라 2000년 훨씬 전부터 그러고 있다. 도내 거주 인구가 안정세라지만 매년 전출 인구가 집입 인구보다 조금은 많다. 크게 표가 안 난다 뿐이지 하향 고착화 현상이 굳어지고 있음은 답답한 일이다. 전북의 인구가 줄고 있음이 목도된 지 오래인데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수년 전부터 우리 전북 지역이 늙어가고 있다는 진단이 있었는데 그것은 결코 허튼 것이 아니다. 이제 전북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모를 정도가 돼버렸다. 17%를 훌쩍 넘어섰다고 보도된 지도 상당히 지났기 때문이다. 이같은 우려는 그 무렵 29세 이하 젊은이의 인구 비율이 18%대를 간신히 턱걸이 했었다는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한다. 젊은이들이 줄고 있음에 반하여 늙은이만 늘고 있는 지역의 현실이 딱하다. 청년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북도의 책임이 크다.

전북도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더 분발해야 한다. 고용안정을 위해서도 그래야 한다. 지금 중요한 것은 여차다 낙관적으로 비쳐지는 통계 수치가 아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괜찮은 일자리이다. 해마다 출항하는 젊은이가 수 만 명이나 되는데 그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는가. 전북도는 도내 거주 인구가 안정세라고 되뇌일 게 아니다. 지금부터서라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열과 성을 다해야 한다. 거주 인구 하향 고착화를 막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입장을 역지사지해야 한다. 비정규직이나 기간제 일자리는 젊은이들을 붙잡아 둘 수 없다는 지적이다.

새학기 도교육청에 거는 기대

새학기를 맞아 도교육청에 거는 기대가 크다. 지금 이 순간 도교육청은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터이다. 해마다 새학기 때면 반복해 하는 말이 있다.도교육청이 하는 일의 중요성은 전북도청이 하는 일에 버금간다는 말이 그것이다. 그만큼 도교육청이 하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므로 도교육청은 도민들과 친화하려는 정신택도를 가져야겠다. 도교육청이 먼저 말하는 기보다는 도민의 뜻에 먼저 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지난날 도교육청은 도민들로부터 굵지 않은 눈길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교육청의 고위 인사들은 일의 우선순위를 알아야 한다. 그 우선순위의 대상이 무엇인지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오랜 정점이 되고 있는 누리 예산도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1년 이상 기다리고 있는 장기 미임용 초등교사 72명을 포함해 전체 333명의 고민도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그리고 사립학교의 비리 문제도 있다. 그 문제들을 언제까지고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다시는 어른의 도마에 오르는 일이 없게 하려면 도교육청은 많은 바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 도 교육청은 도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상식에 반하는 일을 용납해서 안 된다. 준경을 상실하면 결국 남는 것은 비협조와 냉소 뿐이다. 도교육청은 그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저번에 교육부로부터 받은 부끄러운 성적표도 잊지 말아야겠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전국에서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데 다른데 정신을 팔면 곤란하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업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더욱 분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도교육청이 신경 써줘야 할 부면은 하나 뿐이 아니다. 교육부의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될 돈 문제도 그렇지만 학생들의 건강을 살피는 거머 학생들간의 폭력을 잠재우는 거머 교사들의 자긍심을 세워주는 거머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야 할 문제이다. 그리고 사립학교의 비리 문제도 있다. 그 문제들을 언제까지고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다시는 어른의 도마에 오르는 일이 없게 하려면 도교육청은 많은 바 일을 제대로 해야

독자제언

112 신고서 침착하게 위치 설명 해야

112는 범죄는 물론 각종 사건사고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다. 하지만 112와 전화가 연결되었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얼마나 자신의 위치와 상황을 침착하고 효과적으로 112에 전달할 수 있는지의 능력에 따라 단 몇 분만에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가 하면 안전확보에 몇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며 때론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오원춘 사건 이후 대한민국의 112신고 처리시스템은 그야말로 혁신적 발전을 이루어냈다. 긴급신고에 대해서는 관할과 기능을 불문하고 최인정 경찰차량에 출동하는 IDS(신속배치시스템 Instant Dispatch System)

가 운영되고 있고 긴급상황이 의심되는 불안전 신고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 통신수사와 함께 대규모 경찰인력을 투입해 신고전화의 발신지국을 중심으로 저인망식 수색활동을 벌여 국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총력적 대응을 펼쳐나가고 있다.

Wi-Fi 나 GPS를 이용한 위치 추적 시스템은 기술적 조건이 갖춰진 경우 한해 제한적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뿐이어서 신고자의 위치 설명에 의한 특정보다 결코 효과적일 수는 없다.

따라서 112신고서 가장 먼저 정확한 위치를 설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열 순찰경찰서 필덕파출소장 경감

독자제언

부정불량식품 근절 위해 적극 신고하자

시대가 변화사인지 요즘은 막방, 료방 등 먹거리 음식방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먹거리 방송 등 우리에게 음식문화가 인기를 끌 즈음 먹거리를 이용한 불량식품을 이용한 불법도 더욱 크게 일어나고 있기에, 우리가 근절해야 할 부정불량식품에 대해 재조명 하고자 한다.

불량식품이란 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등의 과정에서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생산, 유통, 판매되는 식품으로 품질과 상태가 좋지 않아 이것을 섭취하였을 때 인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말한다.

또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식품, 또는 병든 동물 등을 사용하여 만든 식품, 기준과 규격이 고지되지

않은 화학첨가물 등이 포함된 식품, 유독기구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식품, 기준과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허위표시, 과대포장 등을 한 식품을 들 수 있다.

가끔은 살인, 강도 등 주요범죄에 비해 불량식품이 사회에 끼치는 불안감이 적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불량식품 위해 요소를 살펴보면 불량식품으로 인한 신체적 폭력과 정신적 해가 있어서 이야기한 범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영향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불량식품 신고는 국민 없이 112 또는 1399번으로 신고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소비자센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식품안전과 수순을 통해 가능하다.

홍현수 무주경찰서 수사과장

Advertisement for Jeonju Maeil newspaper. Features a stylized illustration of a sailboat on the water with a sun/moon in the background. Text includes: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A serious journal for humans who bring courage and hope),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 (A better newspaper, a newspaper loved more, a newspaper with readers), and '전주매일' (Jeonju Maeil) logo.